

개화승 이동인의 출신 사찰에 관한 고찰*

노성환**

(e-mail : nosh1@hanmail.net)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4. 통도사 출신 이동인 |
| 2. 이동인의 출신 사찰 | 4.1 국내자료 |
| 3. 이동인 출신 사찰에 관한 諸說 | 4.2 일본자료 |
| 3.1 봉원사설 | 5. 나가기 |
| 3.2 범어사설 | |
| 3.3 통도사설 | |
| 3.4 부여 소재 사찰설 | |
| 3.5 해인사설 | |
| 3.6 일본설 | |

キーワード：李東仁(Lee Dong in), 通度寺(Tongdosa), 奥村円心(Okumura Ensin), 本願寺(Honganzi), 釜山(Busan)

1. 들어가기

이동인(李東仁:1849?-1881)은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조선 후기 불교승려이자 개화사상가이다. 그는 유대치, 오경석을 비롯한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조선과 일본을 바쁘게 오가며 일본, 중국, 영국 측의 인사들과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다가 1881년에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이다. 그에 대한 평가도 친일파 애국이라는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7S1A6A3A01079869)

** 울산대학교 교수 역사민속학, 비교신화학

양극을 달린다. 이처럼 그는 수수께끼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이동인의 신분이 불교 승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그가 어느 사찰의 출신인지 정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다. 대부분이 이것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그의 출신 사찰을 범어사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양산 통도사에서는 이동인이 통도사 승려이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통도사에는 이동인이 직접 쓴 서한 2통이 남아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통도사 극락선원에 주석하였던 경봉(鏡峰:1892-1982) 스님의 유품에 이동인이 일본인 오쿠무라 엔신(奥村圓心:1843-1913)에게 보낸 2통의 서한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의외이다. 이동인이 범어사 승려라면 그것들이 범어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통도사에 있는 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이동인과 경봉스님은 나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동인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두 분은 살아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봉스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경봉스님의 은사가 청호(淸湖)스님이고, 이동인의 법명이 천호(淺湖)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청호와 천호는 마치 한분의 은사 밑에서 출가하여 수행하는 문중의 형제와도 같은 이름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서한은 원래 천호스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후 제자인 경봉스님이 물려받았으며, 이것을 다시 명정스님이 경봉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발견되어 『삼소굴의 소식』¹⁾이라는 책에 넣음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 속에 다음과 같은 이동의 서한이 실려져 있다.

<서한1>

내일 경성의 노옹(老翁: 유대치)께서 찾으라고 하는 화물을 무사히 출관(出館)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로부터 경성에서 오는 소식을 듣는 대로 곧바로 저에게 적어 보내기를 천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1879년(추정) 11월 8일 조야각지 재배 오쿠무라 엔신 전

(翌日京城老翁推覓荷物 無事出館乎 自後京信隨所入聞卽爲我錄是 于萬切仰十一月 八月 朝野覺遲 再拜 奥村圓心殿)²⁾

1) 이 책은 경봉스님의 제자인 명정스님이 유품을 정리하여 1997년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서한2>

뜻밖에도 6월 14일 자로 보내신 혜서(惠書)를 6일 받아 읽게 되니 그 기쁨은 목마를 때에 미음 먹는 것과 시장할 때에 맛있는 음식이 생긴 것보다 더 좋습니다. 곧 달려가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대개 움직거림은 반드시 사람을 쓰잘 데 없이 마음만 쓰이게 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일은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이 많은데 어느 날에나 동녘(일본)으로 건너오시겠소? 느릿느릿한 세월 같지만 일각이 삼추와도 같아서 이마에 손을 얹고 목을 빼고 기다리오니 양해하소서. 번거로워 하실까 봐서 이만 줄입니다.

(1880년) 6월 20일. 동경 천초 추방정 6번지 조야각치삼가 드림. 오쿠무라 선생

(意外 惠書發於六月十四日 奉讀於第六日 其喜不可勝 如渴得漿 如飢得佳肴 卽欲起身面話而 凡所施爲必由於人 徒切馳 勞而已 且夫相談奉議之事 如山如海 未知何日 啓駕于東乎 悠悠一刻如三秋 戴手引頸而已 惠諒焉 恐煩不宣 六月二十日 東京 淺草 諏訪町 六番地 朝野覺治 謝呈 奧村先生)³⁾

이상에서 보듯이 두 서한은 모두 이동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있는 오쿠무라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동인은 자신을 일본식 이름인 조야각지(朝野覺遲), 조야학치(朝野學治)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편지가 이동인이 통도사에서 일본으로 부친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이동인이 통도사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을 터인데, 그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도사의 출신 설을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정황을 암시하는 유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동인의 출신 사찰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선학들이 벌였던 견해들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그것과 아울러 이동인과 관련된 국내외의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이동인의 출신 사찰을 밝히는 데 본고의 목적을 두었다.

2) 석명정 역주 (1997) 『삼소굴 소식』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선원, p.337.
3) 석명정 역주 (1997), 앞의 책 p.339.

2. 이동인의 출신 사찰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이동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기로 하자.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개화승이라는 낱말이 붙는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우리나라는 격변의 시기이었다. 그는 일찍이 유흥기(劉鴻基:1831-?)와 만나 개화사상에 눈을 떴고, 김옥균(金玉均:1851-1894)과 박영효(朴泳孝:1861-1939), 서재필(徐載弼:1864-1951) 등과 교류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 유력한 정치인, 지식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의 사정과 개화문물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토대로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는 김홍집을 설득하여 인천개항에도 관여하였으며, 민영익을 통해 고종의 신의를 얻어 한미조약의 체결에도 개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흥아회(興亞會)에도 가입하여 아시아연대론을 펼쳤고, 신사유람단을 파견하는 일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유길준(兪吉濬:1856-1914), 윤치호(尹致昊:1865-1945)와 같은 인물을 일본에 유학을 보내는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이러한 그가 1881년 3월 참모관으로 총포와 군함 구입의 임무를 받고 이원회(李元會:1827-?)와 함께 일본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출발 직전 갑자기 자취를 종적을 감추었다. 이처럼 이동인은 근대 개화기에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기 위해 정치 외교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벌였던 승려이었다. 그러한 이동인을 역사학자 이선근은 「기결(奇傑)했던 개화승」이라 했고,⁴⁾ 이현희는 「신출귀몰의 개화승」이라 하였으며,⁵⁾ 소설가 신봉승은 조선 근대화에 이바지한 이동인의 외교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불꽃같았던 열정이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⁶⁾

이같은 이동인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있다. 그 중에는 친일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도 없지는 않으나,⁷⁾ 그 밖의 대부분은 조선의 근대화에 노력한 그의 개화사상과 정치 외교적인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그 결과

4) 이선근(1966), 「기결했던 개화승 이동인의 업적과 생애」 『동아논총(3)』 동아대학교, p.63.

5) 이현희(1987), 「한국근대 인물의 재발견: 신출귀몰의 개화승 이동인」 『통일한국(38)』 평화문제연구소, p.73.

6) 신봉승(2015), 「역사 에세이: 젊은 승려 이동인의 불꽃 인생」 『한글한자문화(155)』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p.22.

7) 임혜봉(1993), 『한권으로 보는 불교사』 가람기획, pp.273-276.

그의 업적과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동인에 대한 의문이 모두 풀린 것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 중 하나가 그가 사용한 일본 이름이다.

친일문학의 연구자 임종국은 이동인을 개화기에 활동한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창씨 개명을 한 사람이며, 일본명은 아사노 도진(淺野東仁)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⁸⁾ 이것으로 인해 그는 창씨 제1호의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친일파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창씨개명을 했다고는 하나 어떤 이름으로 창씨개명한 것인지도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가 사용한 일본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승명으로는 광명대사(光明大師), 지금까지 거론되는 이름만 해도 조야각지(朝野覺遲), 조야학치(朝野學治), 조야동인(朝野東仁), 천야동인(淺野東仁), 조야계윤(朝野繼胤)⁹⁾이라는 이름들이 있다. 임종국이 지적한 천야동인(淺野東仁)이라는 것도 일본측 기록이다.¹⁰⁾ 정작 자신이 직접 사용한 이름은 그것과 달리 조야각지(朝野覺遲), 조야학치(朝野學治)이다. 그리고 영국 외교관 어니스트 사토(Ernest Satow)를 만났을 때는 일본 이름을 조선에서 온 야인이라는 뜻으로 조야(朝野)라고 했다.

이처럼 그의 일본 이름은 과거 친일파 인사가 했던 것처럼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일본명으로 지어 사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조선에서 사용한 그의 이름은 아사노 도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동인이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와 결을 달리 하는 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서 일본명은 오늘날 재일교포들이 자신들의 본명은 그대로 고수하되, 일본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통명으로 일본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일본명이란 조선을 혼을 버리고 일본의 정신을 택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생활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본 이름이 각지(覺遲)라도, 학치(學治)라도, 계윤(繼胤)이라도 좋았

8) 임종국(1991), 『실록 친일파』 돌베개, pp.24-25.

9) 이만손(李晩孫)의 「무효상소(無效上疏)」에 의하면 「이동인은 원래 조선의 승려로...<중략>...일본 성명은 朝野繼胤이라」라는 대목이 나온다.

10) 淺野東仁이라는 이름은 일본 정토진종(淨土真宗) 오타니파(大谷派)의 사료인 오쿠무라 엔신의 『조선국포교일지(朝鮮國布教日誌)』와 『조선개교50년지(朝鮮開教五十年誌)』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가 동본원사(東本願寺)로 건너가 득도식을 통해 일본 승적을 취득하였을 때 얻어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던 것이다. 김옥균도 일본 생활을 위해 이와타 슈사쿠(岩田周作), 이와타 산와(岩田三和)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우리의 태극기를 만든 박영효도 야마자키 나가하루(山崎永春)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들도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일본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일본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일본명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동인에게는 김옥균과 박영효와 다른 점이 있다. 그의 성씨 선택에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 즉, 그의 성씨는 조선을 나타내는 「조」가 들어가는 조야(朝野)이어야 했거나, 자신의 승명인 천호(淺湖)를 살리기 위해 「천」자가 들어가는 천야(淺野)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성씨에서 보듯이 비록 일본 성씨를 선택하여 사용했다 하더라도 「조선인 승려 천호」라는 사실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조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와타, 야마자키라는 성씨를 사용한 김옥균과 박영효와 다른 점이다.

그러한 그에게 과연 창씨개명 1호라 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후손들이 내린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나라를 파는 친일은 행위에 있지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를 창씨 개명 1호자라고 낙인을 찍은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동의한 적은 있어도 정작 그가 사용한 일본명이 어떠한 것들인지조차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한 적도 없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사용한 일본명도 이러한 상황일진대, 그의 신상에 이르면 더욱더 갑갑하고 캄캄하다. 그가 어디에서 어떠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의 본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의 주제인 출신 사찰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혹자는 그를 부산 사람이라 하고, 또 양산 출신이라고도 한다. 정작 본인 이동인은 영국인 어니스트 사토를 만났을 때는 서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때 「서울」이란 자신의 고향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끔 대한민국을 영어 표기할 때 「서울 코리아」라고 적듯이 조선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사용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그의 출신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그의 본관도 그러하다. 혹자는 수안(遂安) 이씨라 하기도 하고, 혹자는 학성(鶴城) 이씨라고도 한다. 그 중 어느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다. 후술하겠지만 그의 출신 사찰에 대해서도 각종 다양한 견해들이 노정되어 있을 뿐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의 출신사찰은 일찍부터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가 되었다. 그것을 대변하듯이

역사학자 이선근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호암(湖岩)의 글에는 그가 본시 「통도사 승려」이었다 하고, 그 이상은 미상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점에 대하여 후일의 『서재필박사 자서전』을 보면, 그가 부산 사람으로 서대문 밖에서 산 하나 너머 있는 봉원사 중이었다고 밝혔으며, 該 자서전의 집필자 고 김도태(金道泰)씨는 일부러 봉원사를 방문하고, 그 사실을 확인해 본 기사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본서 간행된 「고균기념회(古均記念會)」 편찬 『김옥균전(金玉均傳)』에도 이동인이 「북한 산록의 산사를 지키던 암주였다」고 나오니, 비록 사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봉원사 중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승려의 생활이 흔히 이 절에서 저 절로 옮겨 다니기가 쉬운 만큼 부산 사람 이동인도 한 때 통도사의 중이었을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출잡아 병자년 이후 신사년까지의 문화개방기 5-6년 동안은 확실히 봉원사 중으로 생활하고 행동했음이 틀림없다.¹¹⁾

이 글에서는 보듯이 그의 출신 사찰은 통도사일지 모르나, 『서재필박사 자서전』, 『김옥균전(金玉均傳)』에 의거하면 개화파와 접촉했던 시기인 5-6년 동안 봉원사에 머물렀던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역으로 본다면 이동인은 봉원사에 머물기 전에는 통도사의 승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불교학자 서경수도 「구름 속의 인물인 이동인은 본사조차 애매하다. 오쿠무라(奥村)같이 통도사라는 설도 있고, 이능화같이 범어사라는 설도 있으며, 서울 근교의 봉원사 그의 본사라는 설도 있다」라고 하며, 정작 본인은 그 중 어느 설을 지지하는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¹²⁾ 그리고 최근 이동인을 일본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연구를 펼친 최인택도 「이동인은 원래 부산사람이었는데 승려의 특성상 여러 절을 옮겨 다니다 보니, 봉원사 혹은 통도사의 승려였으나, 1876년 이후, 5,6년 동안은 봉원사 승려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¹³⁾ 이처럼 그도 이선근의 의

11) 이선근(1966), 앞의 논문, pp.65-66.

12) 서경수(1988), 서경수(1988), 「개화사상가와 불교 -승 이동인을 중심으로-」 『근대한국불교사론』 민족사, p.300.

13) 최인택(2006), 「개항기 奥村円心の 조선포교 활동과 이동인」 『동북아문화연구(1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433.

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선근의 글은 통도사의 승려이었을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것을 역으로 표현하자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심증적으로는 통도사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과 같다.

3. 이동인 출신 사찰에 관한 諸說

그렇다면 선학들은 이동인의 출신 사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많은 견해들이 나와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봉원사설, 범어사설, 통도사설, 부여소재 사찰설, 해인사설, 그 밖에도 일본설까지 있다.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1 봉원사설

봉원사설을 가장 많이 펴뜨린 사람은 소설가 신봉승이었다. 그는 이동인을 봉원사에 승적을 두었던 개화승이라고 하면서,¹⁴⁾ 자신의 작품 『이동인의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5년전 무공선사가 강보에 싸인 핏덩이를 안고 경내로 들어서면서 황 보살에게 말했었다. “허허허, 아들 삼아서 키워보시게나.” “아들이라니오?” “허허허, 이놈이 장차 중놈이 될지 장군이 될지를 아직은 모르기에 하는 소릴 세.” 그 후, 황 보살의 애뜻한 보살핌에 힘입어 어린 핏덩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무공선사는 어린 아이의 성을 왕실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이(李)가로 정했고, 동방의 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동인이라 지었다. 이동인은 새절이라고도 불리는 봉원사의 노리개요, 꽃으로 자랐다. 물론 황 보살의 젖을 빨면서였다. 이런 까까머리 이동인은 글자를 익히면서도 곧 문장을 알았고, 사서(四書)를 읽으면서는 불경도 함께 깨쳤다.¹⁵⁾

14) 신봉승(2013), 『역사가 지식이다』 선출판, p.99.

15) 신봉승(2001), 『이동인의 나라(1)』 동방미디어, p.15.

이처럼 소설 신봉승의 작 『이동인의 나라(1)』에서는 핏덩이로 버려진 이동인이 봉원사의 승려 무공에게 주워졌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절에서 황보살의 젖을 먹고 자라난 인물로 묘사되어있다. 이동인이라는 이름도 무공선사가 왕실을 위하고, 동방의 현자가 되기를 바라며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만 보면 이동인은 처음부터 봉원사 승려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장면이다. 이동인은 봉원사 이전에 다른 어느 절에 있었다. 우리는 그 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가 봉원사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고균기념회가 낸 『김옥균전』에는 이동인을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산사를 지키는 암주(庵主)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 절은 봉원사 삼성암(三聖庵)이었다. 실제로 봉원사는 출신 사찰을 떠나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인사들과 접촉할 때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그곳이 신봉승이 말한 것처럼 승적을 취득한 출가한 사찰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출신 사찰이 봉원사가 될 수 없다.

3.2 범어사설

이 설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유포되어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이동인을 범어사 출신 승려로 설명되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지식이다. 이를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은 이능화(李能和:1869-1943)이다. 이능화는 자신의 저서 『조선불교통사(하)』에서 조선의 개화파 승려로서 백담사(百潭寺) 승려 탁정식(卓挺植, 鼎植:?-1884)과 함께 이동인을 소개할 때 「時有二僧 屬革新派 一是梵魚寺之李東仁 入于日本」라고 했다.¹⁶⁾ 즉, 이동인을 범어사 승려라고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설은 학회에서도 오랫동안 여과없이 가장 많이 통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광린,¹⁷⁾ 박용모¹⁸⁾, 이봉춘¹⁹⁾, 김경집²⁰⁾ 등의 연구이다. 그 중 이광린과 김 경집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견해를 밝히게 된 근거(이유)

16) 이능화(1918), 『조선불교통사(하)』 新文館, p.899.

17) 이광린(1968), 「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 사료」 『동아연구』 서강대 동아연구소, p.480.

18) 박용모(2010) 「개화승 이동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학(58)』 한국불교학회, p.206.

19) 이봉춘(2001), 「근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체성」 『회당학보』, 회당학회, pp.101-103.

20) 김경집(2006), 「근대 개화승의 활동과 현실인식 -李東仁과 無不을 중심으로-」 『보조사상(25)』 불일출판사, p.469.

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이광린은 “『조선포교일지』에 의하면 이동인은 경남 양산 통도사 백련암에 속했던 승려이고, 그 실명은 기인이라 했다. 물론 통도사도 부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쉽게 방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의해 통도사설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²¹⁾ 그는 그 이유를 이능화는 1868년생이므로 갑신정변 당시에는 17세였다. 그리고 개화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같으므로, 이동인의 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²²⁾ 그에 비해 김경집은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양산 통도사와 서울의 봉원사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의 행적이나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범어사 출신이라는 주장이 다소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²³⁾

이러한 설명은 범어사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전자는 명백한 사료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눈을 감고, 위대한 대학자(이능화)의 기억이 정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한 것이고, 후자는 이동인을 둘러싼 상황들을 보았을 때 정황상으로 범어사 출신일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어떤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개인적인 직감에 의탁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냉철한 이성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범어사설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 설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한 이능화가 어떤 근거로 이동인을 범어사 출신으로 기술하였는지를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동인을 범어사 출신 승려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이동인 자신도 범어사 승려라고 한반도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3.3 통도사설

이 설도 일찍부터 있었다. 임종국도 이동인을 통도사 승려라고 한 적이 있다.²⁴⁾ 그리고 승려이자 역사학자인 임혜봉도 통도사에 적을 둔 승려라고 했

21) 이광린(1968), 앞의 논문, p.480.

22) 이광린(1973), 「개화승 이동인」 『개화당연구』 일조각, p.94.

23) 김경집(2006), 앞의 논문, p.469.

다.²⁵⁾ 그러나 이 설은 범어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광호는 여기에 대해 「본시 통도사 승려였다는 말도 있고, 또 어느 절에서 왔다고 하는 등 일정한 설은 아직 없다고」 하며 그에 대한 논지를 자체를 피했다.²⁶⁾ 그러한 가운데 최인택은 『부산역사문화대전』의 「이동인」의 항목에 이동인을 개항기에 일본 동본원사(東本願寺) 부산별원(釜山別院)의 오쿠무라 엔신과 교류하였던 개화파 승려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출신 사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동인의 출생 연도와 출생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소속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점이 많다. 그동안 이동인이 부산 출신으로 범어사, 혹은 봉원사의 승려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으나, 지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개항 당시 이동인의 소속은 오쿠무라 엔신(奧村圓心)의 『조선 포교 일지』에 기술되어 있는 통도사가 유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²⁷⁾

이상의 기술은 앞에서 언급한 그의 연구논문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즉, 그의 연구에서는 「봉원사 혹은 통도사의 승려였으나」라고 언급했던 것이 이상에서는 「개항 당시 이동인의 소속은 오쿠무라 엔신의 『조선 포교 일지』에 기술되어 있는 통도사가 유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하듯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학문적 태도는 한상길에게도 보인다. 한 때 그는 범어사설을 지지하였다.²⁸⁾ 그러나 근년에 접어들어 「이동인의 출신 사찰이 어디인가의 문제인데, 논자에 따라 통도사와 범어사로 나눈다」고 하면서 오쿠무라의 『포교일지』에 「부산출신으로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범명을 기인, 법호는 서명」이라고 기술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통도사 출신 승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여기에서 보듯이 이 설을 가장 크게 뒷받침해주

24) 임종국(1991), 앞의 책, p.24.

25) 임혜봉(1993), 「불교계의 친일인맥」 『역사비평(8)』 역사비평사, p.81.

26) 정광호(1994),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관련하여-』 인하대출판부, p.71.

27) 최인택, 「이동인」 『부산역사문화대전』 참조.

28) 한상길(2006), 「개화사상의 형성과 근대불교」 『불교학보(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p.23, 한상길(2007), 「개화기 일본불교의 전파와 한국불교」 『불교학보(4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122.

29) 한상길(2011), 「근현대 불교인물 탐구(3) 이동인」 『불교평론(46)』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그리고 그의 2010년도 논문인 「근대 화계사의 역사와 위상」 『대각사상(19)』 대각사상연구원, p.332에서도 「통도사 출신인 듯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는 것이 오쿠무라 엔신의 『포교일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설이 더욱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포교일지』 이외의 새로운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하겠다.

3.4 부여 소재 사찰설

이 설은 제일 사학자 강건영(姜健榮)이 주장한 것이다. 그는 1880년(明治 13) 11월 14일 일본의 초야신문(朝野新聞)에 이동인을 취영산(鷲靈山)의 승려라고 소개되어있는 것을 보고 부여 소재의 사찰 출신이라는 설을 낸 것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취영산은 백제의 고도 부여에 있는 산으로, 그곳에는 승각사(崇角寺)와 도천사(道泉寺)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동인은 그 절 중 어느 곳에서 수행한 승려이며, 그 이후 범어사이며 봉원사로 옮긴 것이라고 해석했다.³⁰⁾ 유감스럽게 그의 해석은 너무나 빗나갔다. 아마도 그는 통도사의 산호가 영취산(靈鷲山)이며, 초야신문이 그것을 잘못 표기하여 취령산으로 하였다 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설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3.5 해인사설

이 설은 조선 말기 학자 은사(隱士) 박주대(朴周大:1836-1912)가 펴낸 야사집(野史集)인 『나암수록(羅巖隨錄)』(2권)에 「或云朝鮮人 棄親削髮 抄經海印寺 入洋國學技 昨年來日本(혹자의 말에 따르면 조선인이 아버지를 버리고 삭발한 후 海印寺를 거쳐 양국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고 작년에 일본에 왔다고 한다)」이라는 문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³¹⁾ 즉, 이동인이 해인사로 출가하여 그 이후 서양에 들어가 문물을 익히고 일본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 그를 두고 해인사의 승려이었다는 소문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것도 어떠한 근거도 없고, 또 이동인 자신도 해인사를 거론한 적이 없어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3.6 일본설

이것도 박주대의 『나암수록』(2권)에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0) 姜健榮 『開化派リーダーたちの日本亡命: 金玉均, 朴泳孝, 徐載弼の足跡を辿る』 p.161.

31) 朴周大(1980), 『羅巖隨錄(2)』 국사편찬위원회, p.258.

이동인은 서양술을 하는 왜승(倭僧)인데, 수신사 김홍집을 만날 때 매우 정성스러웠다. 김홍집이 복명하는 날 동인(東仁)의 재예(才藝)를 크게 아뢰었다. 그리하여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와 민영익(閔泳翊)의 사랑방을 주고 가끔 입시하게 했다. 그리고 기무아문의 참모관에 차하(差下)했다(義質과 결탁한 자이다) 「李東仁倭僧西洋術者也 見修信使洪集甚款 洪集復命日 盛陳東仁才藝 因送人招來 饋閔泳翊別房 種種入侍 仍差機務衙參謀官(與義質同心結者)」.³²⁾

이상의 문장에서 이동인을 왜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이동인이 조선인이면서 일본의 승려가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일본인으로서 승려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만일 그것이 전자의 의견이라면 맞는 것이지만, 후자의 것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다. 왜냐하면 1879년 일본 정토진종의 승려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간 이동인은 교토에 머물면서, 그 이듬해인 1880년(明治13) 4월 4일 정토진종(淨土眞宗)의 관계자에게 득도식(得度式)을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 4월 5일에 득도식을 마쳤다. 그러므로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승려가 된 적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왜승이라는 말이 일본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확한 어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도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4. 통도사 출신 이동인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동인의 출신사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통도사설이다. 실제로 통도사에는 이동인이 통도사 승려이었다는 것 이외에도 「통도사 불이문을 뛰어넘을 정도로 무예가 출중했다」는 구전도 내려오고 있다.³³⁾ 이러한 것들은 이동인이 통도사와 전혀 무관하였다면 나올 수 없는 전승이다. 그가 통도사 승려이었다는 증거가 자료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한 것들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朴周大(1980), 앞의 책, p.258.

33) 석명정 역주 (1997), 앞의 책 p.337.

4.1 국내 자료

국내에 남아있는 자료에서 이동인을 통도사 승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재필이다. 서재필은 김옥균과 함께 봉원사에 거주하던 이동인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다. 그러한 서재필의 회고록에서 이동인은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자기는 부산사람인데 일본말도 좀 알고 일본도 몇 번 다녀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서양 사람들과 사귀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배워다가 문명을 일으킨다고 한단 말이야.....<중략>.....이동인은 통도사 중이라 하는데, 그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1879년(을유)에 김옥균의 부탁으로 일본에 갔던 일만은 분명하다.³⁴⁾

여기서 보듯이 이동인은 봉원사에 머물면서 만난 서재필을 비롯한 여러 개 화파 인사들에게 봉원사에 오기 전 자신은 부산 출신 통도사의 승려라고 소개하였다. 이를 들은 서재필은 봉원사에 온 후 어떤 이유(경로)에서 인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근대문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 승려라는 뜻의 말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평론가인 문일평은 「그의 성명은 이동인으로 본래 통도사 승려이었다. 그의 이력은 미상하나 일찍 김옥균의 명으로 고종16년 을유(乙酉)에 그옥이 일본에 건너갔다」³⁵⁾라고 하였던 것이다.

서재필은 이어서 이동인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즉, 「그가 가지고 온 서적이 많았는데, 역사도 있고, 지리도 있고 물리 화학과 같은 것도 있었으며, 그것을 보기 위해서 3-4개월간 그 절에 자주 들렀지만, 당시 이러한 책은 적발되면 사학이라 해서 중벌에 처해졌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장시간 독서할 수 없어 그 다음에는 동대문 밖의 영도사(永導寺)라는 절에서 독서하고 다시 봉원사로 올라가는 등 이와 같이 되풀이하기를 1년이 넘어서 그 책들을 완독했다. 그 책들은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어 읽으면 의미는 거의 통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완독한 바, 세계의 대세를 거의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타국과 같이 민중의 권리를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솟아났다. 바꾸어 말하면 이동인이라는 승려가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우리는 그러한 책들을 읽고 그 사상을 몸에 익혔으니 봉원사가 우리 개

34) 金道泰(1972), 『徐載弼博士自叙伝』 을유문화사, pp.84-86.

35) 文一平(1948), 「僧 李東仁」 『湖岩全集(3)』 일성당서점, p.38.

화과의 온상인 것이다」라고 했다.³⁶⁾

이처럼 서재필과 이동인의 만남은 한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1년 이상 여러 차례를 만나며 이동인으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이동인이 통도사 승려이었다는 그의 기억은 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통도사설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4.2 일본 자료

이동인이 통도사 출신 승려라는 사실은 일본 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 첫째로 일본해군이 편찬한 「日清日露戰役時の 清韓地名位置」이라는 문건이다.³⁷⁾ 이 문건은 일본해군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당시 중국과 조선의 지명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유명한 곳과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곳이면 특기사항을 기록한 문건이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의 경우에는 통도사, 사배동(沙背洞), 선암사(仙巖寺)³⁸⁾가 들어가 있는데, 통도사에는 단순히 「通度寺(仏僧 李東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사배동은 고개가 있으며, 사송리(沙松里)라고도 하는데, 청일전쟁 때 노즈(野津) 사단장이 무더운 여름철에 행군한 곳으로 기록되어있고, 또 선암사는 부산 왜관에 사는 일본인들이 찾아가는 곳으로 기록되어있다. 통도사란에 「불승 이동인」이라는 적혀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당시 이동인은 통도사를 대표하는 승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1880년(明治13) 11월 14일자 일본의 초야신문(朝野新聞) 기사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朝鮮) 취령산(鷲靈山)의 僧 광명대사(光明大師) 釋 이동인(李東仁)은 작년 12월 중 우리나라에 내항하여 잠시 서경(西京) 본원사(本願寺)의 종제(從弟)로 있으면서, 조야동인(朝野東仁)으로 개칭(改稱)하여 본년 5월 문부성(文部省)에 고용되어 일본어를 배우고, 지난날 같은 나라 수신사(修信使)가 내조(來朝)하였을 때 면회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을 비롯해, 우내각방(宇內各

36) 金道泰(1972), 앞의 책, pp.84-86

37) 이 문건은 현재 <http://www9.plala.or.jp/chietaku/shinkan.htm> 에서 공개하고 있다 (검색일: 2018.09.19).

38) 이 절은 현재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백양산(白陽山)에 있는 선암사인 것 같다. 일제 강점기에는 31본산 가운데 하나였던 범어사의 말사였고 현재도 범어사에 소속되어 있다. 당시 일본 해군이 이 사찰이 양산 소속으로 착각한 것 같다.

邦)의 형세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수신사로 하여금 크게 깨우치게 한 바,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 수구당의 완몽(頑夢)을 교파(攪破)하고자 지난 달 귀국을 재촉하고, 같은 달 26일 원산진에 도착하자마자 경성에 들어가 현시(現時) 개화당의 수령이라 칭하는 모씨와 면회하고, 방금 각국의 형세 및 장래 조선국의 목적 등을 절실히 논변했다.³⁹⁾

이상의 기사는 이동인이 1879년 일본으로 건너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하면 그는 도일하여 곧 본원사의 승적을 취득하고 이름도 조야동인(朝野東仁)으로 하였으며, 1880년 5월에는 일본 문부성에서 일본어를 익혔다. 그리고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수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일본 국내외 정세를 상세히 들려주었고, 이에 영향을 입은 수신사는 그와 함께 귀국하여 조선의 개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쓰면서 이동인을 「조선(朝鮮) 취령산(鷲靈山)의 승(僧) 광명대사(光明大師) 석(釋) 이동인(李東仁)」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서 보듯이 그는 아사노 도진(朝野東仁)이라는 이름 이외에 광명대사라는 승명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그의 출신사찰이 鷲靈山(축령산, 취령산)임을 나타내고 있다. 취령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전국에서 두 곳이나 있다. 하나는 전남 장성에 있는 축령산이고, 또 하나는 부여지역에 있는 취령산이다. 그 중 부여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도천사는 취령산에 있다고 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재일 사학자 강건영이 이 기사를 사실이라고 믿고 이동인을 부여 소재 사찰 출신설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해이다. 통도사의 산호가 영취산(靈鷲山)이다. 그러므로 이동인은 「조선 영취산 승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을 것이다. 이를 신문사측이 단순 실수하여 「조선 취령산 승려」로 기사가 나간 것이었다. 즉, 그것은 오타로 인해 빚어진 오해의 결과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바르게 하면 「조선 영취산 통도사 승려 광명대사 석 이동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스에히로 시게야스(末廣重恭:1849-1896)이다. 그는 이동인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으로 이동인을 「그 나라의 정체, 풍속을 물으니 언어가 명량(明亮)하고 조금도 응체함이 없으며, 조선의 폐정을 누거(縷擧)함에 굳이 감추지 않으며, 구주 제국의 형세로부터 아

39) 朝野新聞 1880년(明治13) 11월 14일자

방의 사정에도 통효(通曉)하여<생략> 나는 은근히 그 호걸의 사(士) 입을 믿으니 그 연령은 30세 내외이고, 키는 작고 안색이 기추(奇醜)하며 안정(眼睛)이 괴이하다. ...<생략>... 겨우 1년간에 아방의 언어에 통함이 이와 같으니 역시 놀랄 만하다」고 인상을 기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동인이 행방 불명이 되자, 같은 신문 1881년 5월 6일자에 「전날의 신문에 조선 개화당인 이동인이 암살당한 일을 기재한 바 있으나, 이 사람은 일찍이 아국(일본)에 유하여 아시아의 사정에 통식했을 뿐만 아니라, 탁절유위(卓絶有爲)의 사(士)이며, 후일 조선 정권의 정권을 잡아 쇠운을 만회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 나라에 돌아가서 비명의 사(死)를 마친 것은 참으로 아깝기 그지없는 일이다」라고 기사화하기도 했다.⁴⁰⁾ 이처럼 여러 번 이동인에 관한 기사를 여러 번 쓴 사람이기에 이동인이 조선의 영취산 통도사 승려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셋째는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의 연혁지인 『조선개교50년지(朝鮮開教五十年誌)』이다. 여기에 의하면 이동인이 부산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 승려 오쿠무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전문을 번역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별원이 개설된 이듬해인 1878년(明治11) 12월의 어느 날,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아침이었다. 통경사(通慶寺)의 승려라고 하는 이동인 씨가 간절히 오쿠무라(奥村) 법사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며 별원을 찾아왔다. 품격도 있고 문필도 뛰어나서 오쿠무라 법사가 만났던 승려들과는 대단히 분위기가 달랐으므로, 오쿠무라 법사도 그를 대단히 정중하게 대했다. 그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다. 그 후 그는 오쿠무라 법사의 후의에 감사하며 여러 차례 내방했고, 어떨 때는 별원에 며칠간 머물면서 항상 시사(時事)와 국제간의 정세를 말할 뿐 굳이 불교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쿠무라 법사는 더욱 그가 심상한 승려가 아님을 알고, 언저리 그의 진면목을 간파하려고 했지만, 그는 쉽게 심사를 털어놓지 않았다. 그렇게 반년이나 지났을 것이다. 12년 초 여름 경부터 경성에 간다고 하면서 일시 소식이 두절되었다. 8월 중순에 이르러 갑자기 경성에서 찾아와서는 사람을 멀리하더니, 이제까지는 충심(衷心)을 털어놓기를 꺼렸지만 이제 그 시기에 도달했다, 부디 나를 위해 일비(一臂)의

40) 朝野新聞 1881년 5월 6일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전제하면서 그는 박영효, 김옥균 두 사람의 의촉(依囑)을 받아 일본의 정세시찰에 투신하겠다는 결심을 말하고, 차제에 일본의 태도를 시찰하고 문물을 연구해서 조선의 문화개혁(文化改革)에 공언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앞으로는 조금도 숨김없이 모든 일을 귀 법사에게 맡길 테니 내 뜻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참된 진심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또 박영효, 김옥균 두 사람에게서 그 여비로 받은 길이 2촌 남짓의 순금 막대 4자루를 보여주면서 여행준비를 상담했다.⁴¹⁾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인 오쿠무라 법사는 오쿠무라 엔신(奧村圓心)을 말한다. 그는 정토진종대곡파(淨土眞宗大谷派) 본원사(本願寺)의 승려이다. 그가 조선에 파견된 것은 일본정부의 조선 진출과도 맞물려 있었다. 그 사정이 『조선개교50주년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당시 내무대신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1830-1878)와 외무대신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1832-1893)가 본원사의 관장인 엄여상인(嚴如上人:1817-1894)에게 선신을 보내어 “본원사에 있어서 제일차 개교에 공로가 있는 조신(淨信)의 후손인 오쿠무라 엔신(奧村圓心) 및 히라노 게이스이(平野惠粹)의 두 법사(兩師)를 발탁하여 부산에 별원을 건설할 것을 명하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⁴²⁾ 즉, 정부의 요청에 의해 본원사의 관장인 엄여가 이를 허가 하였고, 그로 인해 1877년 부산으로 들어와 본원사의 별원을 개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오쿠무라 엔신을 선택하여 조선으로 보낸 것은 그의 선조 조신 덕분이었다. 오쿠무라 조신(奧村淨信)은 오쿠무라 카몬노스케(奧村掃部之介)라고도 하는데, 그는 1588년 본원사(本願寺) 주지 교여상인(教如上人:1558-1614)으로부터 조선포교의 명을 받아 부산에 건너와 고덕사(高德寺)라는 절을 짓고 1591년까지 포교 또는 밀정활동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다.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는 그의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조선으로 들어와 포교와 함께 정보를 수집하였듯이, 후손인 그도 일본을 위해 조선으로 들어가 선조가 했던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거주하는 부산 별원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41) 大谷派 本願寺 朝鮮開教監督部編(1927), 『朝鮮開教五十年誌』, 大谷派 本願寺 朝鮮開教監督部, pp.137-138.

42) 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1927), 앞의 책, pp.18-19.

아니다. 정부가 개입된 반관반민적인 종교기관이었다.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이동인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쿠무라에 다가갔던 것 같다. 서로 나눈 이야기도 불교보다는 시사와 국제정세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좀처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로 친숙해지자 자기의 본심을 말하기 시작했고, 김옥균과 박영효 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개화파 인사이며, 그들의 의뢰를 받아 일본에 가서 정세를 시찰하여 돌아와 조선의 문화개혁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에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동인을 오타니파(大谷派)에서는 다른 승려들과는 달리 품격과 문필의 면에서 탁월하여 정중히 그들 대하였다 했다. 이같은 이동인을 그들은 통경사(通慶寺)의 승려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조선에 통경사란 사찰은 없다. 이것도 명백히 조야신문이 영취산을 취령산으로 하였듯이 통도사를 통경사로 잘못하여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동인은 통도사 출신 승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오쿠무라 엔신이 조선포교 기간 동안 작성했던 『조선국포교일지(朝鮮國布教日誌)』이다. 그의 일지 1877년 9월 29일부터 1881년 10월까지 되어 있다. 일지이기 때문에 적힌 내용도 사실에 가깝다. 특히 이 일지는 이동인 연구와 출신 사찰을 밝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오쿠무라는 직접적으로 이동인의 도일을 도운 사람이며, 또 그 이후에도 이동인과 서신을 교환하고, 또 일본에서도 만나는 등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자이다. 그러므로 이동인의 출신사찰에 대해서는 들은 그대로 서술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그는 이동인 이외에도 범어사와 통도사를 비롯한 당시 조선의 많은 사찰들의 승려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인의 출신사찰에 관한 기록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이동인과 오쿠무라의 첫 만남은 『조선개교50주년지』와 차이가 난다. 『조선국포교일지』에 의하면 이들의 만남은 1878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상황을 『조선국포교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6월 2일

경기도 삼성암(三聖庵) 승려가 와서 종일 진중에 대해 담화를 나누었다(後筆註 즉, 東仁이다),

6월 3일

또 삼성암의 승려가 와서 수차례에 걸쳐 필담을 나누고 『석씨요람(釋氏要覽)』을 빌려갔다.

9월 15일

또한 通度寺 白蓮庵 西明, 實名 琪仁이 와서 『稽古釋氏錄』를 반환. 『大藏目錄』 『維摩經』 1부, 『阿彌陀經註書』 1부를 西京本山에 기증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생략>,,, 기인에게는 『七祖聖教』 1부를 주고.....

9월 18일

기인(동인)에게 「칠조성교(七祖聖教)」 1부를 빌려주었다.

12월 9일

통도사 승려 東仁과 담소를 수 시간 나눈 후에 돌아감

12월 10일

東仁(琪仁)에게 염주와 聖教 1부를 本山에서 주었다

12월 11일

東仁이 체재하며 護國扶宗을 되풀이 하며 이들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중에 우리 군함을 보고자 하여 金鐵桂와 함께 比叡艦을 보러갔다.⁴³⁾

이상에서 보듯이 이동인과 오쿠무라와의 만남은 1878년 6월 2일 이동인이 찾아감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때 이동인은 자신을 경기도 삼성암의 승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필자는 훗날 그를 동인이라 주석을 달았다. 그러므로 그는 이동인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동인은 다음 날도 찾아가 필담을 나누고, 『석씨요람』을 빌려갔다. 그 후 며칠이 지난 9월 15일에 빌려간 책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오쿠무라를 찾았다. 그리고 답례로 『대장목록(大藏目錄)』, 『유마경(維摩經)』 『아미타경주서(阿彌陀經註書)』을 기부하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통도사(通度寺) 백련암(白蓮庵) 승려 서명(西明)이며, 실명이 기인(琪仁)이라고 숨기지 않고 밝혔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고난 후 오쿠무라는 이동인을 동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인은 속명은 기인이며, 통도사 백련암에서 출가하여 서명이라는 승명을 가진 자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동인은 통도사 출신의 승려임에 틀림없다.

한편 통도사와 오쿠무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통도사의 승려들 가운데 이동인이 최초로 오쿠무라와 접촉한 인물이 아

43) 奥村円心(1877), 『朝鮮国布教日誌』(柏原祐泉編(1975), 『真宗史料集成第十一卷』(收錄) 同朋社, pp.456-462.

니다. 그의 일지에 의하면 이동인이 접촉하기 이전 1868년 2월11일에 2명, 3월 13일에는 추산(秋山)과 운산(雲山) 이외 1명이 곳감 100여개 선물로 가져갔다. 그 때 오쿠무라는 답례로 초와 목면을 선물했고, 추산과 운산에게는 『진종교지(眞宗教旨)』를 1부씩 주었다. 그리고 5월14일에는 무릇 5명, 5월 15일에는 3명, 이동인이 찾아가기 하루 전날인 6월 1일에도 3명이 찾아가 『진종교지』를 읽고 감배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후 6월 25일에는 4명, 7월22일에는 벽파(碧波)를 포함한 3명의 승려가 찾아갔다고 적혀있다.⁴⁴⁾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이동인은 도일하기 전에 통도사 승려들로부터 오쿠무라가 운영하는 별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그들을 의도적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동인이 적극적으로 오쿠무라와 접촉하고 일본으로 가게 된 다음에는 그곳을 찾아가는 통도사 승려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동인의 도일에 통도사 승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증표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동인의 도일의 배경에는 김옥균과 박영호와 같은 개화파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사전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은 통도사의 승려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도사의 승려들은 이동인이 자신들의 대표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물을 보고 돌아와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5. 나가기

소설가 신봉승은 자신이 작품화한 『이동인의 나라』를 읽은 어느 독자가 「이동인은 30세 전후의 아까운 나이로 혈벗고 가난한 조국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사라진 선각자」, 「그가 없었다면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개화파 젊은이가 탄생될 수 없었다」고 평한 글을 보고 매우 흡족한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파한 글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⁴⁵⁾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이동인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44) 奥村円心(1877), 앞의 책 pp.454-458.

45) 신봉승(2013), 앞의 책, p.99.

성장과정을 거쳤는지 아는 바가 별로 없다. 그러한 가운데 그를 수안 이씨 혹은 학성 이씨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침없이 천민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⁴⁶⁾ 그리고 출신 사찰에 대해서도 입증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봉은사설, 범어사설, 통도사설, 해인사설, 부여소재 사찰설, 심지어 일본설도 모자랐는지 본래 승려가 아니었으나 1880년 정식으로 일본 승려가 되었다는 주장까지 그야말로 설이 난무하고 있었다. 그 중 범어사설이 가장 많이 통용되어 국가가 편찬한 사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후학들의 불찰이었다. 많은 사료들에서 그의 출신 사찰이 통도사라고 기술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 한 채 위대한 선학(이능화)이 지적한 글만 오로지 신봉하여 통용시킨 결과이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눈을 감고 외면한 것을 다시 눈을 뜨고 바로 보기를 기대하며 출신 사찰에 관한 자료들을 열거하여 이동인이 통도사 출신 승려임을 밝힌 것이다.

특히 제시된 자료들은 이동인을 직접 만나고 통교한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자료에는 국내의 것으로는 서재필의 회고록이 있고, 일본자료에는 「日清日露戰役時の清韓地名位置」라는 해군성의 문건, 1880년 11월 14일자 초야신문(朝野新聞)기사, 그리고 진중대곡과의 연혁지 『조선개교50년지』와 이동인을 직접 일본으로 보낸 오쿠무라 엔신의 『조선국포교일지』가 있다. 그것에는 분명히 이동인을 통도사(백련암)의 승려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혹자는 이동인이 남긴 활동과 업적이 중요하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반문을 할지 모른다. 불교의 수행과 포교, 그리고 조국의 근대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통도사와 이동인이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말은 개인을 종교와 국가의 가치에 매몰시키는 독선에 불과하다. 가족에게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을 권리가 있고, 개인도 국가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없다. 즉, 통도사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이동인은 자신의 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동인의 출신 사찰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이동인은 돌아갈 집이 없었다. 다행히도 2008년 8월 봉원사에서는 이동인을 갑신정변의 주축을 이룬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개

46) 서경수(1988), 앞의 논문, p.295.

화파의 정신적 지도자로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절에서 주석했던 그를 기리는 합장모양의 석물을 세웠다. 봉원사가 이동인을 받아들인 것이다. 합장한 그의 석물 밑에는 「이곳은 조국 근대화에 개화로 상량하신 이동인 선사께서 주석하시던 자리다. 본 수인상은 수위안좌인(受位安座印)으로서 존귀한 분을 모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선사께서 머무시던 이곳에 입상(立像)하여 우국으로 보여주시는 보살정신을 기린다」라는 글귀를 새겼다. 그러나 봉원사는 서울에서 활동하며 머문 곳이지 그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다.

그에 비해 정작 그를 승려로서 태어나게 한 통도사에는 그를 위한 기념행사 및 기념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2월 영축총림 통도사 노천문도회(老天門徒會)가 이동인 스님을 비롯한 구하(九河:1872-1965)스님, 월하(月下:1915-2003)스님의 선양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⁴⁷⁾ 그러나 문제는 이들 세분 중에 구하, 월하 두 스님들은 분명히 통도사의 승려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지만, 이동인만은 「법명은 천호(淺湖), 양산 출신으로 한때 통도사에서 승려 생활을 했다」고 구전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통도사측은 이동인이 통도사 출신 승려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통도사의 숙제가 풀린 것 같다. 이동인은 통도사 출신의 승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일본행을 적극 도운 자들이 바로 통도사 승려들이었다. 그 결과 통도사에는 지금까지 이동인에 관한 일화가 전해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동인은 조선의 근대화를 갈망하는 통도사 문도들의 대표로서 일본행을 택한 개화승이었다. 이처럼 통도사는 일찍부터 개화사상에 눈을 뜨고 있었음을 이동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집(2006) 「근대 개화승의 활동과 현실인식」 『보조사상(25)』 불일출판사, p.469.
 金道泰(1972) 『徐載弼博士自敘傳』 을유문화사, pp.84-86.
 文一平(1948) 「僧 李東仁」 『湖岩全集(3)』 일성당서점, p.38.
 박용모(2010) 「개화승 이동인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학(58)』 한국불교학회, p.206.

47) 불교신문, 2014년 2월 24일자

- 朴周大(1980) 『羅巖隨錄(2)』 국사편찬위원회, p.258.
- 서경수(1988) 「개화사상가와 불교 -승 이동인을 중심으로-」 『근대한국불교사론』 민족사, p.300.
- 석명정 역주(1997) 『삼소굴 소식』 영출총림 통도사 극락선원, pp.337-338.
- 신봉승(2001) 『이동인의 나라(1)』 동방미디어, p.15.
- _____ (2013) 『역사가 지식이다』 선출판, p.99
- _____ (2015) 「역사 에세이: 젊은 승려 이동인의 불꽃 인생」 『한글한자문화(155)』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p.22.
- 이능화(1918) 『조선불교통사(하)』 新文館, p.899.
- 이광린(1968) 「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 사료」 『동아연구』 서강대 동아연구소, p.480.
- 李光麟(1979) 『개화당연구』 일조각, p.94.
- 이봉춘(2001) 「근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체성」 『회당학보』, 회당학회, pp.101-103.
- 이선근(1966) 「기걸했던 개화승 이동인의 업적과 생애」 『동아논총(3)』 동아대학교, p.63.
- 이현희(1987) 「한국근대 인물의 재발견: 신출귀몰의 개화승 이동인」 『통일한국(38)』 평화문제연구소, p.73.
- 임중국 (1991) 『실록 친일파』 돌베개. pp.24-25.
- 임혜봉(1993) 「불교계의 친일인맥」 『역사비평(8)』 역사비평사, p.81.
- 임혜봉(1994) 『한편으로 보는 불교사』 가람기획, pp. 265-276.
- 한상길(2006) 「개화사상의 형성과 근대불교」 『불교학보(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p.23.
- _____ (2007) 「개화기 일본불교의 전파와 한국불교」 『불교학보(4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122.
- _____ (2010) 「근대 화계사의 역사와 위상」 『대각사상(19)』 대각사상연구원, p.332.
- _____ (2011) 「근현대 불교인물 탐구(3) 이동인」 『불교평론(46)』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 정광호(1994)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관련하여-』 인하대 출판부, p.71.
- 조동걸(1985) 「奥村의 朝鮮布教日誌」 『한국학논총(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최인택(2006) 「개항기 奥村圓心の 조선포교 활동과 이동인」 『동북아문화연구(1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433.
- 奥村圓心(1877) 『朝鮮國布教日誌』 (柏原祐泉編(1975), 『眞宗史料集成第十一卷』 收錄) 同朋社, pp.456-462.
- 姜健榮(2006) 『開化派リーダーたちの日本亡命: 金玉均, 朴泳孝, 徐載弼の足跡を辿る』 朱鳥社, p.161
- 大谷派 本願寺 朝鮮開教監督部編(1927), 『朝鮮開教五十年誌』, 大谷派 本願寺 朝鮮開教監督部, pp.137-138.
- 「日清・日露戦役時の清韓地名位置」 <http://www9.plala.or.jp/chietaku/shinkan.htm> (검색일: 2018.09.19)

논문 투고 일자 : 2018.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要旨>

開化僧李東仁の出身寺刹に関する考察

魯成煥

これまで李東仁の活動と業績に関しては割合に細かく研究されているが、彼がいつどこで生まれてどのような成長過程を経てきたのか個人的な事柄については殆んど知られていない。中でも彼の出身寺刹についても何も立証されていない。それにも関わらずこれまで奉元寺説, 梵魚寺説, 通度寺説, 海印寺説, 扶余所在の寺刹説, さらに日本説だけでは足りなかったのか、本来僧侶ではなかったが、1880年に正式に日本の僧侶になったなど様々な説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その中で梵魚寺説がほぼ通説化され、国家機関が編纂した辞典にもそのまま反映され記載されている。

これは後学の不察であった。多くの文献資料で彼の出身の寺刹が通度寺だと示しているのに、それを等閑視し、偉大な先学(李能和)の指摘を疑わずにもっぱら信奉し通用させた結果であった。李東仁が通度寺出身の僧侶であったことを証明する資料は、国内のものとしては徐載弼の回顧録があり、日本側の資料としては「日清日露戦役時の清韓地名位置」という海軍省の文件、1880年11月14日付の朝野新聞、そして真宗大谷派の沿革誌『朝鮮開教50年誌』、奥村円心の『朝鮮国布教日誌』がある。この資料は少なくとも李東仁に直接会い交流した人たちの証言と記録である。そこにははっきり李東仁を通度寺(白蓮庵)の僧侶だと明示している。既存の多くの文献が示している如く、彼の出身寺刹は通度寺だったのである。

A study on the buddhist birth temple of the enlightened monk Lee Dong In

No, Sung-Hwan

There have been detailed studies o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Lee Dong In, but little is known about his personal identity or when and where he was born.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proof about the location of his birth temple, different studies have argued that he was from Bongeunsa, Beomeosa, Tongdosa, Haeinsa, or even Booyea in Japan. Some argue that he was not originally a monk but became a Japanese monk in 1880. Among these assertions, it is widely accepted that Lee Dong In was from Beomeosa. This is reflected in South Korean dictionaries.

This is the result of carelessness by younger scholars. Despite the fact that past literature has mentioned that Tongdo was Lee Dong's temple, these researchers neglected this information and instead trusted the writings of the great scholar Lee Neung Hwa. However, various sources have confirmed that Lee Dong In was a Tongdosa Buddhist. These include the memoirs of Seo Jae Pil in Korea; a Japanese naval service document titled 「日清日露戦役時 清韓地名位置」; an article from the Choya Newspaper on November 14, 1880; the history of Jinjong Daigokpa,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Josun-Pogyo journal. These sources provide specific testimonies and records from individuals who met and communicated with Lee Dong In. They clearly state that he was a monk from Tongdo Temple (Baikryeonam). In other words, Lee Dong In was from Tongdosa temple.